

프로야구 감독들 '대박' 행렬

초보 감독들까지 가세 몸값 천정부지... KIA 서정환 감독 끝까지



삼성 선동열감독 19억5천만원



LG 김재박감독 15억 5천만원



한화 김인식감독 14억원



KIA 서정환 감독 6억원

올 시즌 종료 후 국내 프로야구 감독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LG와 한화, 삼성 감독의 몸값은 계약금을 포함해 14억~19억원에 이른다.

구단 감독 가운데 몸값이 가장 낮은 감독으로 주저앉았다. 감독 몸값 릴레이의 첫 주자는 SK. SK는 시즌 종료 후 김성근 감독과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5천만원, 총액 8억원에 2년간 계약하며 고액 연봉 시대를 열었다.

계약금 3억5천만원, 연봉 3억5천만원, 총액 14억원에 3년 재계약을 맺었다. 삼성도 자존심(?)을 세웠다. 선동열 감독의 연봉을 2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선언한 것.

약금 2억원, 연봉 2억원에 3년 감독계약을 맺었다. 초보 감독에게 총액 8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 이같이 느닷없는 몸값 인상 경쟁에 지난해 계약을 맺은 서정환 KIA 감독만 체면(?)을 구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1억원대 연봉 감독은 모두 2명으로 KIA 서정환 감독(1억5천만원·3년)과 롯데 강병철 감독(1억7천만원·2년) 뿐이다. 지난해 최하위 팀을 1년만에 4강으로 끌어올린 서 감독의 실력 대비 몸값으로서는 다소 약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로 말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IA측도 고민에 빠졌다. 이미 3년 계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액 등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 오현필 KIA운영팀장은 "현재로서는 구단 측에서 별다른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 감독의 연봉이 '최하위'라는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팀 우승때까진 MLB 진출 유보”

이승엽 입장 거듭 표명

일본프로야구의 '명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확고부동한 4번 타자로 특급 대우를 받은 이승엽(30)이 소속팀이 우승하기 전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승엽은 9일 아시아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 시리즈 2006' 삼성 라이온즈-니혼햄 파이터스 경기의 TV 해설을 위해 일본 도쿄돔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코나미컵 해설을 맡은 이승엽 선수가 9일 도쿄돔 구장에서 박홍식 코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니혼햄보다 라뉴가 더 부담”

삼성 결승행 복병...선동열 감독 대만 경계령



“니혼햄 파이터스보다 라뉴 베이스와 경기가 더 부담스럽다”

아시아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 시리즈 2006'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삼성 라이온즈의 선동열 감독은 대만프로야구리그(CPBL)의 통합 챔피언인 라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은 일본 재팬 시리즈 챔피언 니혼햄(9일), 중국 대표팀(10일)과 경기가 이어 11일 오후 7시 라뉴와 경기를 벌인다.

객관적 전력은 삼성이 한 수 위지만 삼성 허물기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라뉴의 전력

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코나미컵 원년이었던 지난해 대만 대표로 참가한 싱보스스의 추격을 4-3으로 힘겹게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당시 1회 3점, 2회 1점을 뽑아 기선을 잡고 5회 3점을 내줘 1점 차로 쫓겼지만 불펜진을 총가동해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도 견고한 방패의 삼성이 라뉴의 예리한 창을 막을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 맞서는 라뉴는 화려한 공격력이 강점이다. 정규시즌 때 대만 리그의 6개 팀 중 가장 높은 팀 타율(0.284)을 자랑했고 대만시리즈에서도 팀 타율 0.303의 불방망이를 휘두

르며 통이 라이온스에 4전 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타자 중에는 라뉴를 대표하는 주포 쟈진펑(29)이 경계대상 1호다.

지난 2002년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던 쟈진펑은 올 해 정규시즌 홈런 21개 등 타율 0.317, 81타점으로 타격 4위와 타점 1위, 홈런 2위로 이름값을 했다. 대만시리즈에서도 홈런 1개 등 타율 0.385(13타수 5안타) 3타점으로 소속팀의 통합우승을 주도했다.

마운드에서는 우스우우(24)와 외국인투수 마이클 레이본(32)이 원투펀치다.

삼성전 선발 출격이 접쳐지는 좌완 우스우우는 정규시즌 17승(3패)에 방어율 2.27의 잔물 피침을 과시했다. 마무리 레이본 모델 가르시아(32)도 올해 14세이브에 방어율 2.11을 기록하며 라뉴 뒷문을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쟈진펑 홈런 두 방...대만, 중국에 콜드게임승

대만 프로야구 챔피언 라뉴 베이스가 아시아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 아시아 시리즈 2006' 개막전에서 중국 드림팀을 대파하고 첫 승을 신고했다.

라뉴는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예선리그 1차전에서 쟈진펑의 홈런 두 방 등 장단 18안타를 몰아쳐 중국에 12-2, 8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양안(兩岸)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경기

에서 기선을 잡은 건 대만 최강팀 라뉴. 라뉴는 3회초 1사 3루에서 황통이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렸다. 반격에 나선 중국은 4회 1사 1, 3루에서 레이의 좌익선상 2루타와 평게이의 내야 안타로 2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라뉴는 5회 장지성의 적시 좌중월 2루타로 2-2 균형을 맞춘 뒤 1사 3루에서 상대 투수 천하이펑의 폭투 때 3루에 있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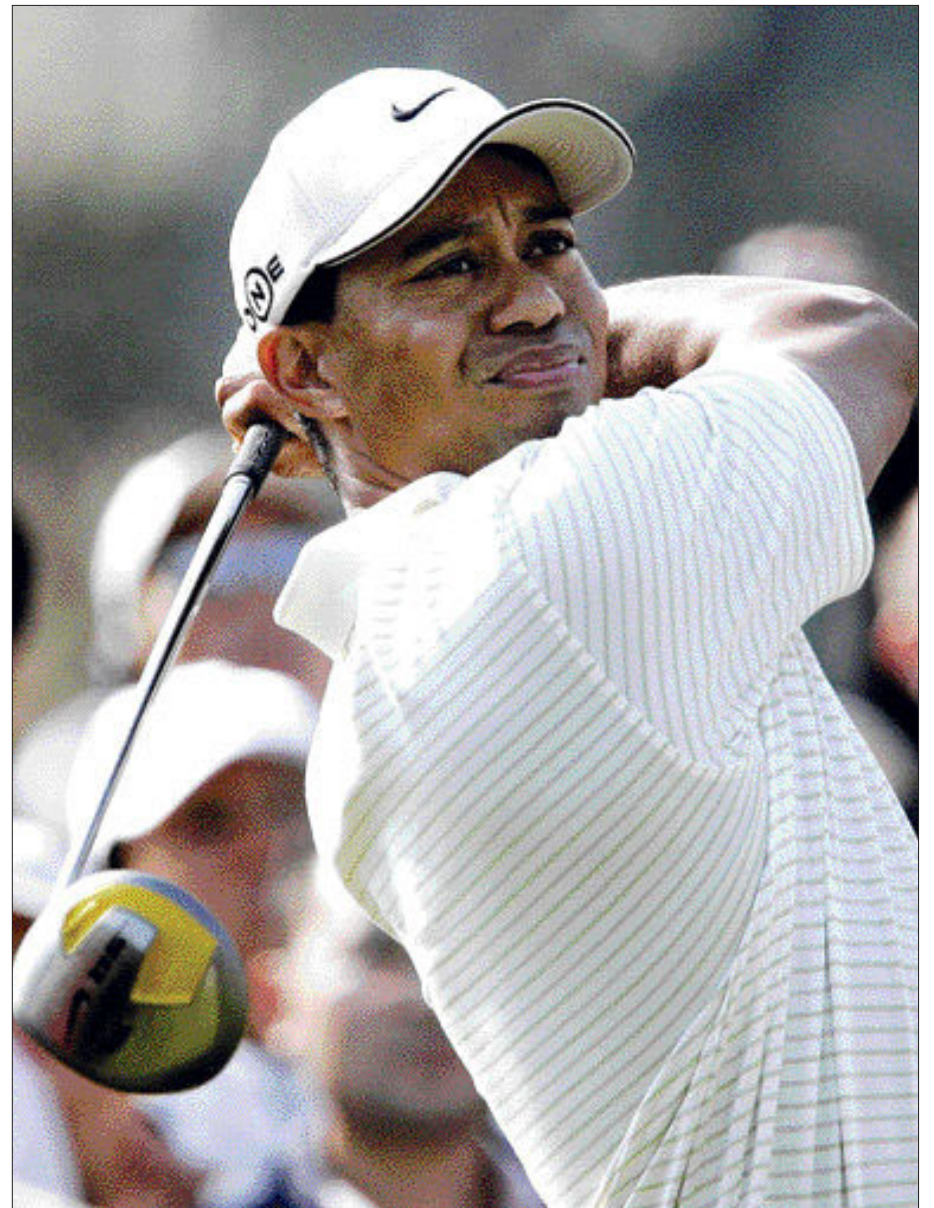
지성이 홈을 밟아 3-2로 뒤집었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활약한 뒤 지난 시즌 후 복귀한 쟈진펑은 라뉴의 주포 다왔다.

4번 타자 쟈진펑은 계속된 1사 만루에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대형 그랜드슬램을 날려 점수를 7-2로 벌렸다. 라뉴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쟈진펑이 좌월 3점 홈런으로 중국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쟈진펑은 8회 2사 2루에서도 중월 2점 아치를 그리는 등 이날 홈런 2개 등 5타수 4안타 6타점의 불꽃 활약으로 대승을 주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타이거우즈가 9일 중국 상하이 시산 인터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HSBC챔피언스 대회 1라운드 10번홀에서 티오프를 한 뒤 공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다.

양용은·최경주 첫 날 톱10

EPGA HSBC챔피언스 골프

양용은(34·케이지디자인)과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챔피언스 첫날 톱10에 진입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지난 9월 아시아투어를 겸한 한국오픈에서 우승해 이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양용은은 9일 중국 상하이의 시산인터내셔널골프장(파72·7천165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쏟아내며 6안타와 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7언더파를 친 선두 조티 란다와(인도)에 1타 뒤졌고 마이클 캄벨(뉴질랜드), 마크 위

렌(스코틀랜드)과 어깨를 나란히 한 공동 2위. 최경주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쳐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과 공동 7위에 자리하며 좋은 성적을 예감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비롯해 짐 퓨리(미국), 비제이 싱(인도) 등 강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양용은은 처음 경기하는 낯선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퍼트와 타수를 줄여 나갔다. 퍼트수는 26개에 불과했고 12번홀(파3)에서 4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오른쪽으로 빗나간 뒤 칩샷까지 걸어 보기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임은아 5언더파 단독선두 KPGA 국민은행 스타 투어

“올해 마지막 대회라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프로 3년차 임은아(23·힐라코리아)가 우승 상금 1억2천500만원이 걸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 국민은행 스타 투어 4차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컵의 꿈을 부풀렸다. 임은아는 9일 경기도 안성시 세븐힐스골프장(파72·6천24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단독 선두에 나섰다. 쌀쌀한 날씨 속에 바람이 심한데다 그린마저 까다로와 스코어를 내기엔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임은아는 치는대로 홀을 빨려 들어간 빼어난 퍼팅 감각을 앞세워 보기에

이 버디만 5개를 골라냈다. 특히 9번홀(파4)에서는 10m짜리 긴 거리 버디 퍼트가 홀에 떨어지는 행운까지 따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상위 랭커들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도 임은아에게는 희소식.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슈퍼투키' 신지애(18·하이마트)는 후반 9개홀에서 버디없이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를 쏟아내며 난조 끝에 2오버파 74타로 부진했다. 2언더파로 순항하던 신지애는 14번홀(파3)에서 티샷이 홀을 살짝 비껴가는 홀인원성 버디 기회를 맞았으나 어이없는 3퍼트 1타를 잃은 뒤 샷이 흔들렸다.

첫뎀던 힘까지...

벨기에의 킴 클리스터스가 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여자프로 테니스(WTA) 올해 마지막 투어대회인 소니아 에릭스 챔피언십에서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의 공을 받아넘기고 있다.

